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1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8. 27(금) 14:00~16:26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1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수도권 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7월 전체회의와 같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자 나주에서 영상회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이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박경주 위원님과 전고필 위원님께서 아직 접속하지 못하셨습니다.

##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오늘 313차 전체회의에는 문학지원부의 강보경 차장을 포함하는 12인의 안전 관련 사무처 직원이 회의 참관을 요청해서 참관을 하고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10차 전체회의에서는 4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4건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11차, 제312차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각각 2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전차(前次) 위원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관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접수받도록 하고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총 2개의 의결사항과 8개의 보고사항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개의 의결사항인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과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은 현장소통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정창호 정책혁신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연이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디오 상태 불량)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정창호 부장님 오디오가 안 들립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오디오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오디오 상태가 좋지 못한 관계로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태림 위원께서 대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종열 위원님께서 현장소통소위원회에 계속해서 참관 자격으로 와 주셨다가 최근에 정식으로 참여를 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님들도 전원 환영을 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과 함께 정종열 위원님도 현장소통소위원회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송원 위원님이 성평등 소위원회로 이동함에 따라서, 송원 위원님이 원래 현장소통소위원회 안에서 여성, 지역 그리고 연극, 청년 관련된 대표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송원 위원님이 나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더불어서 현장 소위 내에 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안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민간위원이 2인밖에 안 계시는데 그중에 1인이 나가시면서 성비의 불균형이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신규위원 위촉을 논의하게 되었고요. 신규위원을 위촉하는 김에 여성 위원이 워낙 부족했던 것도 있고 무용 분야의 위원이 없었던 것을 고려해서 총 2인의 위원을 이번 기회에 신규로 위촉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오실 위원님들의 임기가 7기 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면 새로 2인을 모셔 오더라도 현소위 안에서 같이 하실 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소위 내에서도 역할을 고려해서 공모가 아니라 추천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면담과 토론을 진행해서 위원 2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회의자료에 있는 것처럼 토론과 면담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인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위촉보다는 저희가 추천안을 만든 것인데요. 현소위 안에서 추천과 면접 그리고 내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추천한 2인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현소위가 남은 시간동안 위원회 내에서 조금 더 좋은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태림 위원님의 직접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번호 제905호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부위원으로 정종열 위원님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박연정, 이소영 등 2인의 신임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송원 외부위원을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하는 것에 따른 해촉이 주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위원 구성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인주 위원** : 외부에서 신규위원 2인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모두 무용분야입니다. 저는 결정의 이의는 없습니다만, 현장소위 내부에서 잘 선정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소위의 구성원이 발표되면 당연히 무용분야 위원인 제가 추천 내지는 최소한 관여를 했을 거라고 외부에서는 예상을 할 텐데요. 저는 회의자료를 받기 전까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전에 제 생각이라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러네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홍태림 위원** :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장소위 안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그동안 위원회 안에 장르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로 매번 여쭙보기보다는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안에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절차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무용 분야의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무용 분야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여쭙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들리시나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 임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종열 위원님의 임기는 회의자료에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의 임기와 맞춰서 그 이후의 일정은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우선 안전별 검토의견 보고까지 마쳤는데요.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정정숙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

인 회의라서 꼭 찬성을 묻게 되는데요. 온라인 회의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찬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반대가 없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홍승욱 부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보고를 해 주시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짧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경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공모절차에 따라서 2021년 8월 20일에 심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이 되었고 총 67건이 신청해서 그 가운데 행정 결격이 5건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대상 건수는 62건입니다. 행정 결격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는 12페이지 하단에 있는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난 번 위원회 의결 때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른 사안들만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조정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전·사후 모두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한 사업입니다. 개최지 기준임을 고려해서 지역최소보장제는 미적용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자격에 있어서도 본예산과는 다르게 민간예술단체에 국한해서 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 공모 때 미선정된 단체 가운데 민간단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담심의위원회 및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그 구성절차는 지원심의운영처리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 위원들과 사무처에서 각각 1배수씩, 예비후보를 포함해서 총 3배수를 포함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14쪽에 있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신진, 지역의 구성도 역시 15쪽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절차입니다.

1차 심의 때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2차 심의 때는 각 사업별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별로 미선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르별 잔여예산을 타 장르나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방향성은 역사성, 보존성, 장르별 희소성, 대상계층의 다양성 등을 우선 고려하였고요. 그다음에 추경사업임을 감안해서 최소 지원 규모를 줄이고 가능한 예산규모 내에서 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배분은 기존 그러니까 본예산 사업이나 과거에 저희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에 예산배분을 18억 6,000만 원 정도를 하였

고요. 과거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11억 4,000만 원을 우선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배정은 하나의 방향성과 같은 기준점을 만들고 심의를 해서 지원의 결정은 총 53건. 심의대상 건수는 총 62건인데 62건 중에서 53건이 결정되었고 지원의 규모는 총 30억 원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각 장르별로 배분되어져 있는 지원결정 현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회피 대상이 1인 있었는데요. 뮤지컬 분야의 ○위원이 뮤지컬어워즈에 대해서 협회회원 및 참여단체로 심의에서 회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의 논의사항에서 조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적격자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정산 단체의 경우 지금 신청한 사업들 가운데 선정된 사업은 1달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발표 후 지역대표공연예술체로 지원을 받았던 내역이 있다거나, 저희가 행정 검토는 다 했지만 혹시나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가급적 많은 단체를,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사업자를 심의위원들이 선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후보사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다)항목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이번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과거 예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서 검찰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시공모와 2021년 별도공모 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심의결과 발표 후에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수행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조건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등의 사안이 확정되었을 때, 또한 부정수급위원회 등에서 환수가 결정될 경우에는 반환 등 예술위의 결정에 따르는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이 된다면 빠르면 8월 30일 혹은 9월 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906호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체 긴급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첫 번째 의안을 논의하는 중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경주 위원 회의 참석)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을 할까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반대가 없고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긴급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안건 2개를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2년도 공모사업 준비상황 보고 및 중점개선 방향논의(안)입니다.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텐데요.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보고자료 26페이지입니다.

우선 6월과 7월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회의에서도 이진희 위원님 중심으로 인권보호나 차별금지와 관련된 방향도 이번 공모 때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반영했고요. 거기에 예술계 성평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이진희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초안으로 드린 것에 저희가 TF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으로 반영한 것을 이진희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직원의 인권보호도 필요하겠죠. 특히 저희도 감정노동자로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욕설이나 폭언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참에 제주문화재단이나 다른 광역재단에서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원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공모사업에서 심사결과 발표 과정에서의 잡음들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예술현장에 대한 참여 확대와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확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번 공모 때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연예술 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타 분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에 대한 수급자격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해야 하고 지원신청서 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들을 잡아서 한글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C.R.E.A.T.E + E.C.O'로 키워드를 잡았고요. 이것은 가(안)이니깐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제시되고 있는 8개 영역의 요소들이 이번 공모사업에 반영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걸쳐서 사전에 4인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담고요. 오늘 회의에서는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 논의할 것도 많지만 28페이지의 내용.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주신 내용도 자료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굵직한 저희 지원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보시면 각 사업별로 주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워크숍 등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요.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에 확대 적용을 해야 될 만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논의가 개별적으로 장르 단위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자료들이 있지만 29페이지의 국민권익위의 내용들은 읽어보셨을 것이고요. 30페이지 공모사업의 준비들, 정시공모와 별도공모로 크게 나뉘어서 한다. 다음에 저희 예산의 조기 집행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이 연초부터 충분한 사업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시공모와 별도공모로 나뉘어서 하지만 최대한 별도공모도 올해와 다르게 내년 1분기 이전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전에 안전별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미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흥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없으니까 인위적이라도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기존에도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취합이기 때문에 공연예술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총 30회의 현장간담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장르별 위원님이나 전체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전체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이미 해당 내용들도 결과가 공유되어서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점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규정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진희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도입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듣고 나머지 중점 논의사항으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종국 지원총괄부장의 보고를 축약해서 받으셨습니다. 보고 중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별도로 제안하신 문건이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연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연이어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진희 위원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규정이 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완성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맥락과 내용에 대해 오늘 공유를 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의결절차를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가지신 내용에 대한 오해나 궁금하신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위원회 내에서의 공유와 교육이나 의결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들은 후 이종국 부장님께 처리 절차에 대한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첨부된 자료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충 처리 규정에 대한 제안 배경과 처리 절차에 대한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요. 여기 회의록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은 제출자를 이진희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TF’라는 이름으로 내용들이 제출되었다고 회의록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규정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의무화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규정 제안의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문화예술계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미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9년 공연예술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2019년, 이것은 영화계의 조사입니다만, 조사 결과 모두 공통으로 1위에 해당하는 요구가 행위자 처벌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위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행위자 제재 가능한 경로가 없었던 Y작가 사례에 대한 후속 대응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지원 배제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 과정 없이 공공지원에서 이루어지는 기금으로 작품에 대한 상영이나 전시, 출간 등의 기회들을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의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공연, 전시참여 배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환수 등 민간예술단체나 기관들에서 이런 여론에 힘입은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공공지원 보조사업자나 심의위원으로 타 예술인들을 고용하거나 작품발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부분입니다. 영향력, 권력 안에서 성폭력 행위와 2차 가해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킬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도 현장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치에 대한 공식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 마련의 근거들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처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처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것은 규정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권고나 제재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 판례들에 대한 사례들을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및 기관이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절차는 법적절차와 별도로 정당성을 지닌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형사 책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학교의 인권센터 규정에 의해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징계 했던 사유에 대해서 불임자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희롱의 입증책임과 증명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에 대한 사례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내 사건처리 절차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규정을 살펴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규정 안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만 3분 이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서 2조에 보시면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넓게 문예진흥기금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2항에서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까지 피해자 보호의 맥락 안에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3조

의 3항을 보시겠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정의와 2차 가해에 대한 피해들이 계속해서 재발 생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도록 2차 가해한 내용도 함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 다. 나머지 4조나 5조, 6조는 기관의 책무와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7조는 고충처리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내용입니다. 8조는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8조와 9조는 모두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10조 같은 경우는 고충상담과 관련해서 신청 과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보조사업자의 책무인데 그동안 저희는 지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내부적 체계가 부 재했었는데요. 기금사업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서약서 이행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 때문에 규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어떤 책무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14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위원장을 예술위의 위원장님이 하시 거나 내부에서 위원장 역할을 책임 있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요. 위원회 내 현재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예술지원소위의 소위원장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오늘 제출하였는데요. 이것은 외부에서 위촉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에서 예술위가 책임 있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평등 소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설소위지만 이후에 위원 구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절차나 과정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고충심의위원회 내 용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요. 18조에 제재 및 권고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재 및 권고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가장 쟁점이 될 것은 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 용의 과도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8조 제재 및 권고에서 1항의 4 를 보시면 5년 이하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제한으로 기준을 삼았고요. 심사위원, 자 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영구정지까지 가 능한 제재조치입니다. 그리고 예술위가 운영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과 개척하는 교육에 대한 신청제한도 5년 이하로 가능하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방지조치로 발생한 후에 방지대책을 문체부에 제출하는 안을 마지막으로 해서 규정의 구성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 준비 사 항과 관련해서는 오늘까지 보완과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총괄부장인 이종국 부장으로 부터 핵심 보고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이진희 위원께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규정 제안 의 배경과 심의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우선 제안자를 ‘성희롱·성폭력 TF’로 제안자를 바꿔줄 것을 요청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접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후에 자세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안을 모두 다 논의하거나 모두 협의하는 것 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 다. 2022년도 정기공모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회로서는 한해의 농사나 다름이 없는데요. 내 년도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을 확정짓기 위한 수순을 역산으로 계 산해서 우선 9월 간담회를 9월 9일 목요일로 개최할까 합니다. 혹시 일정이 도저히 안 되 는 위원님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요한 것은 2021년도 9월 정기위원 회가 될 텐데요. 저희가 관례적으로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위원회를 해 왔고요.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이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이번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24일이 됩니다. 그런데

추석연휴가 19일부터 22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휴가를 못한 직원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연휴 분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형편에서 내년도 최종 사업사업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9월 27일 월요일이나 30일 목요일에 개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일정에 대한 조율과 조정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 (9월 정기위원회 및 간담회 일정 조정)

**이원재 위원 :** 질문하고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면 내년도 전체공모에 대한 논의테이블이 있나요? TF 등이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원재 위원 :** 지금까지는 사무처의 안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정책혁신 소위원회 등 기존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논의하는 방식이 있고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한시적 논의테이블을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어떤 맥락인지 알겠는데요. Obligation의 개념, 특히 '부정수급 엄단'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 공모사업이 비전하우스처럼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부정수급은 문제인데 그것을 비전하우스로 만들기에는, Obligation 개념은 이런 지원사업에 쓰기에 적절한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책임감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가 '부정수급 엄단'을 공모사업 계획에 넣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엄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사업 방향 계획에 비전하우스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의사항과 의견을 내는 순서로 옮겨온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논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몇 가지 한 후에 지원총괄부장이 한꺼번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차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회의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분야도 며칠 전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건설적인 제안과 여러 가지 걱정하는 바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별첨자료를 보니까 자문회의에서 수정된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고 있는 과정인지? 다음 간담회에서 이것이 반영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촉박한데 이것이 다음다음으로 미뤄질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 중에 지금 여기에서 개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각론적이고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서 9월 9일 간담회 때는 최대한 이 원안 그대로 오지 않고 뭔가 자문을 통해서 얻어진 의견들이 반영된 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접수된 의견은 어떻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논의 단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되고요. 이 시백 위원님의 말씀도 어떻게 조금 더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 시스템과 체계를 가다듬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내내 지원총괄부장이 현장과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추후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위원들 중심으로 어떤 논의 체계를 짤 것인지는 뒤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지원총괄부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국 지원총괄부장** : 예, 이와 관련해서는 6월과 7월에 말씀을 드렸고요. 각 장르별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건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초안인 상태고 현장 간담회 쪽에서 나온 의견들은 아직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르별로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도 충돌하는 지점들도 있고요. 특히 자격을 완화한다거나 일괄 다년간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등은 현장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어떻게 구성된 현장이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9월 9일로 예정된 간담회 때 최대한 많이 조율이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의견으로 잡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도 각 부서별로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계획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9월 6일에 각 부서의 공모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들과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때는 놓치는 사항이 없이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9월 9일 전에 그런 준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업무프로세스 상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정책소위라든지 논의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어의 톤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상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진희 위원님께서도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내용들은 영진위가 작년에 시행하면서도 본질과 다르게 별건의 쟁점 이슈로 와전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굉장히 빠빠한 일정이라서요. 그리고 9월 9일 오전에 진행된다면 이 1건만으로 하루 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을 쪼개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논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술창작본부가 장르별로 계속해서 지원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그저께까지 이런 회의들을 하루 종일 잡아서 내용을 심화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다만, 지원총괄부장이 보고 중에 이야기를 했던 정책소위 문제에 이 부분을 다 일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르별 소위원회를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르별 소위

위원회가 없으니까 지원사업은 장르별로 설계된 경우는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 역시도 다 관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르 위원님들 중심으로 한 회의에서 이 지원사업 구조를 한번쯤 다뤄보는 것은 어떨겠는가? 거기에서 전체장르가 합의하는 안과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9월 9일 이전에 일정정도 다듬어진 의견으로 반영되어서 간담회에서 논의되면 어떨까? 한번 가지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모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정책소위를 가동해서 단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가동되어야 할 게 아닌가? 지원사업은 사실 앞서 표현한 대로 굉장히 비중이 큰 결정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받아 주시죠.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잠깐 말씀을 보태기로 하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전체되기 전에 각 부서가 장르별 편제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내용도 장르별로 구성되어서 1차적으로는 장르별 현장의 의견을 받아 장르별 위원들께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지원총괄부에서 관련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체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긴급하게 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정유란 위원** :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르별로 자문회의가 가동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된 내용이 취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를테면 제가 연극·뮤지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그 외의 저희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 전체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장르별로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비슷한 의견인데요. 장르 논의는 계속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계속해서 못 하고 있는 게 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예술위가 늘 비판을 받아왔던 지점이잖아요. 장르사업으로 그냥 장르 안에서 한다는 게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원회 차원에서는 사무처장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고 전체회의는 장르별 구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겠습니까? 9월 9일 잡혀 있는 위원회 정책 간담회 이외에도 9월 30일 이전에 전체 간담회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한번 정도 더 여는 것은 어떨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장르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편제 상 9일 이전에 회의를 잡아서 논의를 하도록 설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합의를 하시면 어떨겠습니까? 만약 이래도 논의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총괄부장 설명대로 9시에 모여서 저녁 7~8시까지 회

의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주어진 회의를 집약해서 할 수 있도록 수렴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 회의를 잡아서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전체 흐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좋습니다. 다만, 장르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 쪽으로는 1번 정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4번 해야 할 것 같고요. 문학도 이시백 위원님과 논의했던 부분이 1번 더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 장르는 30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장르가 많다보니까 실제로는 위원장님의 큰 흐름 속에서 9월 9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양해가 된다면 말씀하셨듯이 9월 30일 의결 이전에 전체적으로 맞춰서 그때 다 될 수 있도록 맞추겠습니다. 지금 보면 17개 시도와도 논의하는 구조가 따로 있고요. 내부에서 우리 본부내의 워크숍을 진행을 다 했습니다. 또 작년도 내부워크숍을 할 때 TF에 나왔던 안 그리고 17개 시도와 비교하면서 FGI 쪽으로 해서 현장 전문가와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세부 장르에는 일정의 차질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확인을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장르별 위원 중심 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건은 저도 동일하게 보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시기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 이야기는 9월 9일 이전에 하게 되면 기존 논의와 나란히 가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잡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이 시작되었으니까 장르별 위원 중심 회의와 관련된 제의를 조금 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종열 위원** : 저희 공연예술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회의에 들어가 보면 각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정리하기가 지금 현재로는 벅잡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의견들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장르별로 지금 당장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음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박중관 위원장** :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르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으므로 적절한 시간에 장르별 논의가 완성되어 질 때쯤 전체 장르 위원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지원사업 전체를 스크린 하는 과정을 잡아볼까 합니다. 다만, 지금 논의 중에 나온 것으로는 이것을 9월 상반기 쪽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너무 빠른 논의가 되어서 결정사항과 혼돈 지점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측면으로는 전체 논의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전체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대림 위원** : 장르별 간담회도 아마 장르마다..... 미술이나 음악, 공연도 그럴 것인데요. 진행할 부분은 더 진행을 하고 장르별 간담회 이후에 2022년도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같이 다루는 전체간담회가 양분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 사이 공간에, 작년에도 일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 현소위 안에도 장르별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절차상 너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오늘 보고를 받은 자료 정도라도 공유해서 서면으로라도 전체 의

견이나 장르별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 현소위 정기회의 때 아예 이 주제만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체간담회를 하든지 장르별 회의를 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원재 위원 :** 조금 보태면, 우리가 매년 하는 일인데요. 생각해 보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디테일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고요. 사실 위원회가 왜 계속 비판을 받아 왔느냐 하면 위원들이 자기 장르에 대해서만 논의를 막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우리도 로드맵이 없어요. 사무처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프로세스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시간이 없고 몰리면 논의가 안 되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원방향이 없다.”라고 논의가 또 되고요.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이원재 위원 :** 저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잖아요? 자문회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회의도 당황스러운 게 장르 위원들이 장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고 가는 것이고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장르를 떠나서 위원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계획이 세워지면 되는데요. 지원총괄부가 일하는 것과 미스매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뒤집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프로세스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부터 계속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전체워크숍을 열어야 한다.” 전체워크숍을 한 번도 못 열었어요. 그런데 9월 말까지니까 다시 또 몰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의 아르코혁신의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공론화 과정들도요. 그래서 저는 사업혁신TF를 하고 그쪽 트랙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총괄부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장인주 위원 :** 저도 이원재 위원의 의견에 보태려고 하는데요. 현장소통소위원회에는 제 의견이 전달될 아무런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이 건만 갖고 워크숍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온라인 회의라서 모든 게 정제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투트랙(안)을 받겠습니다.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전체간담회와 지원총괄부와 함께 논의하여 부족하다면 추가 전체간담회를 열어 대응하여 안을 숙성하도록 하고 장르별 세부 계획은 장르 위원과 현장이 중심이 되어 담당부서가 힘을 보태는 형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2개의 성과가 9월 30일 내년도 정기공모계획에 모두 성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논의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자로 다원예술과 관련한 논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해 주셨습니다. 다원예술 사업은 내년도 정기공모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기공모와는 분리되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져야 되거든요. 31일까지 회신을 하고 기다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9월 중에는 다원예술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년도 지원사업을 논의하고 지원사업의 심의방식을 확정짓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 등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가 돼서 박경주 위원님과 당연히 상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전체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다원소위는 지금 프로세스가 짜여 있잖아요. 박경주 위원님이 들어와 계신 모임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신대로 31일까지 회신을 기다리고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원예술과 관련해서 논란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론화 하면서 그 모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전체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시죠.

**박경주 위원 :** 2022년도 공모안 전체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열고 9월 중에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 공모가 10월부터 시작이 되더라도 전체에 대한 것이 안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원예술도 당연히 작년에 사업혁신TF를 했던 것처럼 프로세스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쭙봤어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현재의 프로세스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TF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설계하시고요. 현장에서 제의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제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하고 약속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다 지켜질 것입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박경주 위원 :** 제가 얘기하는 자문회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분야는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내년 공모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원예술도 당연히 작년에 사업혁신TF에서 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어서 문자로 문의를 드렸어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반대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따로 하면 또 비판을 받을 겁니다. 지난 번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사업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 받은 것을 사과했고 우리가 공론화를 해서 현장이 참여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무슨 간담회나 토론회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원재 위원 :** 내년도 기본사항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있던 사업에서 노이즈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대응TF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사업혁신TF에서 했던 것처럼 내년 공모와 관련된 자문회의나 이런 진행들은 그것과 별개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월 중에 토론하고 뭐하고 그것이 다른 분야 위원님들이 하는 간담회나 프로세스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지금 다원예술의 쟁점이 뭐니까? 어떻게 투트랙이 가능합니까? 지금 쟁점은 우리가 “미리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제기 받으면서 이 논의에 대해서 현장과 공론화 논의를 해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로 얘기가 된 상황에서 별도로 우리가 자문회의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내년 계획을 세워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하고 민주적으로 소통을 하고 논의해서 다음 계획을 가져가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상식적이고 맞는 프로세스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별도의 회의를 열어서 그 의혹을 제기 받고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다원예술은 어차피 같은 시점에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장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회의와 공론장을 열고요. 이미 그렇게 합의해서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의사결정이 된 것 대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시 휴식도 하고 정리도 할 겸 현재 3시 10분인데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장르별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나 워크숍으로 위원회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소환 해서 정리를 하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자고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가 되었던 것이 공연예술인데 6회씩 해서 30회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해서는 9월 30일 회의에 못

맞출 것 같아서 방금 홍승욱 부장과 논의를 했습니다. 9월 16일까지 저희들이 말하자면 장르별로 소합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 27일 월요일에 모이고 총괄적인 부분의 논의를 하신 다음에 30일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윈 부분은 아까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물론 안내는 정시 공모든 별도공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혹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내책자에 다윈 같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다시 제안한다는 부분을 붙여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접수하고 논의사항을 진행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송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9월 27일쯤 간담회나 워크숍 등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27일은 일정이 있으셔서 9월 전체회의도 27일은 배제를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다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안 되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라도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신 의견 감사하고 이렇게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국 지원총괄부장 :** 이것은 지극히 실무적인 입장이지만 6월 17일과 7월 15일에 이미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 때 이미 저희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탑다운으로 내려 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바텀업만 얘기하시는지 솔직히 답답해요. 뭐냐 하면, 오늘 드렸던 Equality, Communication, Obligation 등 워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정이 되어야 각 장르별로도 그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 펼쳐놓고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작년 사업혁신TF부터 수 십 차례 얘기를 했고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많은 의견들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하는 게 현장의견수렴인데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고 자꾸 옥상옥의 협의체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은 그냥 참고용인가요? 저는 의사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올 안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상충되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대표적으로 그것입니다. 불임1에 있는 심의 위원 관련해서 업데이트 현황 등을 보고 드렸는데요. 블랙리스트 이행 기간 동안 공공기관

에 재직하셨던 분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심의위원 제한인데 연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분들, 심지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돼서 어쨌든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결된 분에 대해서 계속 심의위원 자격을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로 시간을 갖자.” 이 얘기만 하고 사실 논의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하나? 이런 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8월 말에 원래 집중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애초에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기간이 딱 지금입니다. 오늘 회의인데요. 사실 오늘도 역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가는 것이죠. 아까 이원재 위원님께서 프로세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6월 달에 저희 부서에서 초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보고는 다 드렸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논의된 것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해서 지적 받는..... 그러니까 작년과 다른 게 뭐가? 장르별로 디테일한 안들로 바뀌는 것밖에 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점이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상 적절한 타이밍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미 위원장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자리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전고필 위원 회의참석)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잘 알았고요. 보고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예술감독 선정결과와 2021년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총괄기획자 공모 심의 결과보고를 연이어서 국제교류부의 양한성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먼저 첫 번째 보고안건인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 간담회 때 경과를 보고드린 적이 있어서 후속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당초 처음 꾸려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위원의 전면 재구성을 요청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전면 교체를 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7월 20일에 재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당연직 변함은 없고 외부 위촉직 5명에서 7명으로 보강해서 심의를 추진했고요.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말에 1차 서류 심의 그리고 8월 10일에 2차 인터뷰 심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계원예대의 이영철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17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후속적으로 9월 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부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별 검토의견을 주신 것만 간단한 코멘트를 드리면,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척사유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재심사를 하면서 사전에 유선이나 메일로 안내를 드린 부분들 그리고 철저히 안내를

붙이지 않고 당일 날 현장에서도 2차, 3차 더블체크를 한 부분으로 이행한 결과 조금 더 보완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 전체적인 개선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9월부터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서 전반적인 운영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보고안건인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총괄기획자 공모 심의 결과보고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에 양국 간 양해각서를 통해서 포용과 혁신이라는 대주제 하에 사업을 2년간 리서치 사업을 비롯해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서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올해 1년차 리서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르고 총괄기획자를 선정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 번 자문회의도 거쳤고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연계하고 기존 싱가포르 협력 참여 경험자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최종 2인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9건 신청 중에 저희가 인터뷰 심의 불참자를 제외한 7건을 심의했고 2건에 대해서 당초 배정된 예산을 거의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으로부터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와 국제예술공동기금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총괄기획자 공모 심의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회의 의건서 상으로 문의드린 것 외에 추가로 드릴 의견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쭙보는 것인데요. 현재 신임감독과 계약 체결을 9월 초에 할 예정이잖아요?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당시 감독과 국제교류부가 협의를 거쳐서 개선한 계약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철 감독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2019년도에 개선된 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2019년에 개선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1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운영계획(안) 보고인데요. 공연예술부의 홍승욱 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규모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 순수하게 예술단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지원사업 선정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25개 내외에서 결정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 2018년과 2019년까지는 사업주관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2020년도부터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원로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이나 지원신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선정해서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좀 다른 점들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기존 각 장르별 위원님들이 1인씩 참여해서 사업을 결정했었는데요. 올해 사업은 2인으로 확대해서 심의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업기간이 추진경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서 11월에 공모와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에 교부가 진행되어서 올 7월 말까지 사업이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모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보고를 통해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향후 2022년과 2023년까지도 계속 사업의 공모기간을 당겨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이 개선되는데요. 기존에는 실연자 중심으로 실연자 대상 30%를 준용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창작자 대상으로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출, 안무, 작곡 분야의 분들 중 1인이 참여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오늘 보고가 별도의 내용을 통해서 의결되면 바로 9월에 공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서면으로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기존 주관처에서 예술위가 직접 하는 것을 성과 중심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주관처 선정 방식은 과거 성과와 연계된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공연예술 전 분야를 통합할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극협회 등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정 장르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선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예술위가 작년부터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홍 부장님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질문 드린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성과 중심으로 주관처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질문이 아니었고요. 기존 주관처가 보여준 성과와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했을 때 나타난 성과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극협회가 했던 것은 2019년도고요. 그때는 한 장르에 치중되었다는 설명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2018년에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주관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장르에 편중되었다는 말씀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그들이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자부심을 갖고 의미가 있다고 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본 것입니다. 성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당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그 무렵에는 홍승욱 부장이 담당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본부장 단위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음해서 장단점을 대답할 수 없다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즉석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의 의미가 매우 타당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처 사이에 반드시 단체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되는 성과와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갈무리 해야 할 이유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정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부장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즉시 대답할 내용이 있으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있는 회의니까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면을 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의에 현재 재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접속해 있으면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으로부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2차 도서선정 심의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원로예술인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공연예술부장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예술가의 집의 인터넷 회선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집에서 접속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접속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복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정리해 놓으면 되니까 질의는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유란 위원 :** 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나 한국연극협회에서 주관할 때보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 연극협회에서 사업이 다시 회수되어서요. 제가 연극 쪽 위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공연예술부에 부탁을 드려서 현장의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부탁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 여쭙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선정단체나 지원액 규모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원신청 단체가 연극과 전통 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장르에 편중이 되었다기보다 그해의 사업에 참여하는 단위가 달라서 생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공연예술부 쪽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행히 현재 예술가의 집이 영상회의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니 홍승욱 부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죄송합니다. 중간에 영상회의가 끊겨서 질의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 주관처와 우리가 직접 하는 내용에 있어서 장단점의 비교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리컨대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 홍승욱 부장이 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장단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어떠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정유란 위원님의 질의는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먼저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나중에 사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로예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선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라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4월 달에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이 사업들이 타 사업 때문에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내용을 진행해서 정유란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보고를 접수해 주시고 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2차 도서선정 심의 결과 보고인데요. 문학지원부의 정대훈 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일반회계를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3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 도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 공고는 6월 달에 15일간 진행이 되었고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과 심의회의를 7월과 8월에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청도서는 총 1,053종이었고 43인의 심의위원이 참여를 하셔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분과별 지원심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의대상 도서 중수는 행정 결격을 제외한 985종이었고 그중에 165종을 선정해서 결정했습니다. 물론 8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출판사 또는 생애첫발간도서 그러니까 신진작가들의 첫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심의총평이라든지 선정결과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간략한 역사와 세종도서 보급사업과의 비교 차이를 답변해 달라고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시작해서 쪽 진행이 되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체육부 주관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4년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로 통합되어 운영이 되다가 2018년도에 문학진흥 특화를 위해서 세종도서에서 문학 분야를 분리해서 다시 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종도서는 크게 학술과 교양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문학 분야의 세부 장르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선정도서 규모는 문학나눔 도서는 연간 500종 세종도서는 950종이고 예산규모는 세종도서가 약 80억 규모라면 저희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세종도서에서도 일부 교양 도서 안에 문학도서가 선정됩니다. 약 80종정도 선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작년에 원장님과 위원장님이 만나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문학은 저희 쪽에서 그리고 문학을 제외한 학술과 교양을 세종도서에서 나눠 진행하기로 구두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세종도서를 진행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었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을 못 했고요. 지금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무처에서는 문학사업은 온전히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으로 일원화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새로 원장이나 이사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 번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2021년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2차 도서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도 지원사업이니까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일단 정대훈 부장님께 설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위원 :** 진흥원의 부결 사유가 뭔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이사회에도 문학 분야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관계자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하고 문학 분야의 사업이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낮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재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2021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2차 도서선정 심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요. 다음 보고안건인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정부안 확정 보고를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으로 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보고에서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내년도 총 지출은 255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 3,230억 원이며, 2022년에는 3,485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증액내역은 (가), (나), (다), (라), (마)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나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30억 원의 수준이었는데 조금 숨통이 트일 정도는 반영된 상태이고 공연예술이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141쪽의 총괄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차 심의 이후 변동사항은, 지난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기관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203억 원 정도였으나 이것을 300억으로 증액하여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위원장님께서 2가지를 건의하셨는데 일반회계로부터 문예진흥기금전입금 증액 문제와 청년예술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2가지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142쪽에는 지출 주요 증감내역이 세부사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46쪽까지 그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고 2021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이 비교 형태로 옆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국회 심의로 넘어갑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안이 감액되지 않고 지키는 작업 그리고 일부 증액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정부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023년도 예산을 사실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공모사업계획을 사무처와 같이 준비하면서 공모계획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2023년도의 신규사업이나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논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나눠 주시고 각 사업 부서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문학 같은 경우 현재 3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이 규모를 다시 확대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사업을 가지고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학생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2023년도 문학 분야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극장과 미술관에서 비가 새는 것 때문에 걱정인데요. 내년도 공사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요.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 과목구조 개편이 있어서 청년예술가지원이나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 예술요원제도가 예술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에 예술인력육성 편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예술의 관광자원화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대한 일반회계 이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어렵고 2023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는 것으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건과 달리 복권기금 140억 원은 기재부에서 이후에 모두 전입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올해 총사업비의 7.9%인 255억 원이 증액 되어서 내년에 3,486억 원의 정부안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정정숙 위원님께서 사전의견서에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액분은 상주단체 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순감이 된 것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나가는 사업이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이에요. 일부 사업들 중에서는 관성적 보조사업에 대해서 10%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소폭의 감액 내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유지 하는데 지장이 없는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가장 아픈 부분이 지역문화와 관련된 공연장상주단체사업 같은 것들의 지방이양을 못 막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의 경우 26개 지방이양 사업이 함께 묶여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하여 이 부분을 문예진흥기금 영역 내에 두지는 못했습니다. 배경과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지방이양이 확정되어 있던 예산인데 그동안 평가를 잘 받아서 2년 동안 사업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그래서 급하게 행안부의 지역균형특별회계 내에 향후 5년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 3년까지 포함 8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급히 보냈고요. 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추가 3년과 관련하여 저희는 의견을 제시한 입장입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류재수 기초부장이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박경주 위원님께서 다원예술 분야 예산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43쪽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이 올해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부처(안)에는 증액분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에는 설득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문체부(안)에서는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기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심의를 계속 보수적으로 하다가 10억 원을 추가 반영시켜 줬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 예술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혹시 질의를 못 하시면 9일 간담회에서 질의를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도 저희가 즉각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받으시고 소위원회와 관련한 2개의 보고를 남겨놓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제17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와 제26차, 제27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묶어서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8월 5일에 개최가 되었고요. 저희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는 이날 특이하게 정종열 위원님과 장인주 위원님께서 참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3개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예술의 현재성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하반기 논의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이것 외에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연초에도 여러 가지 아젠다를 설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원사업이나 심의평가제도 관련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해 주셨고 이후 이 방향에 맞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26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7월 28일에 열렸는데요. 이때는 회의안건으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에 대해서 현장예술가가 제안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미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육 분야 지원에 대해서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체육문화예술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체육과 예술이라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연계성이 크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도 답안지를 작성하느라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부분에서는 법제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상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을 봤을 때 저희 예술위 현장소통 소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인 공론화, 사회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진예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사업, 그러니까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사업에 경력별로 신진예술인이 들어왔으면, 1년에서 3

년, 3년에서 5년 등 경력별로 나뉘었다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동료평가 설문 결과에 대해서 박경주 위원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차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8월 11일에 열렸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겠지만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 후보자 면담절차가 진행되어 거의 반 이상이 여기에 소요가 되었고요. 현장소통 정책제안 논의 관련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지재단 관련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할 때 예명 확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라 창구를 안내해 드리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예술원 쟁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후에 입장문을 내서 저희 홈페이지 등에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예술원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는 홍태림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님께서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예술원 입장문 발표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예술원 회장이 저한테도 통화 요청을 해서 회의가 끝나고 연락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현장소위의 명의로 예술원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고요. 입장문의 요지는 예술원의 회원심의제도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회원중심임기제가 최근 개정이 되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중임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회원 예우로 지급되는 180만 원을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회원들은 일단 기본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질병이나 생계곤란이 있는 회원들만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예술가들과 소통을 하는 정례적 절차를 마련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소위에서는 입장문 발표 외에도 추가로 액션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크게 3가지였습니다.

문체부의 공식입장을 어떻게 유도해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회에서 풀어내야 하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국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 할 수 있는 루트 안에서 현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저희가 11월에 작년에 했던 아르코대토론회를 예산상 힘들다면 웹 등을 통해서라도 간소화해서 열 수 있다면 여기에서 한 세션을 예술원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정부, 국회, 예술원 인사들이 모여서 공론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플랜으로 이어나갈지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정정숙 위원 :** 공유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장소통소위원회의 이름으로 입장문이 나간 상태입니까?

**홍태림 위원 :** 현장소통 소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게시판과 현장소통 소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총 8개의 보고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접수 받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지금 현장소위가 페이스북이나 게시판이 있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소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대외적인 입장문의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과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현소위의 멤버가 아닌 경우에는 현소위 게시판을 계속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외적인 입장문의 경우에는 현소위가 예술위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도 입장문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당연하신 지적 같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등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으로 어떤 입장문이 나가면 위원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무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추가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8개의 보고사항을 일괄하여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일정까지 모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기타 논의사항 같은 것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31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 종료)

